

승례문·반구대 암각화·동의보감 ...

우리 문화유산의 의미와 역사



국보, 역사로 읽고 보다

도재기 지음

국보는 유구한 역사의 산물인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대표한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와 앞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시대상도 오롯이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역사의 보물이자 정보가 바로 국보라는 것이다.

2016년 9월 현대 한국의 국보는 328건이다. 제1호 승례문부터 제319호 '동의보감'까지 지정돼 있다. 국보 지정번호는 319호까지이지만 한 지정번호 속에 여러 건의 문화재가 포함된 경우가 있다. '동의보감'과 '조선왕조실록'이 그 같은 경우로 전자는 제319호~3호까지, 후자는 제151호~4호까지 문화재다.

흥미로운 국보 이야기를 다른 책이 출간됐다. 중앙의 일간지 문화·미술 담당 선임기자인 도재기 기자가 펴낸 '국보, 역사로 읽고 보다'는 선사시대 '반구대 암각화'부터 조선의 얼굴을 담은 '하회·병산탈'까지 우리나라 국보의 의미와 가치를 풀어낸다.

책은 국보 328건, 그 모두를 지정번호와 상관없이 한국사 흐름에 맞춰 시대 순으로 다시 정리해 설명한다. 1호~319호까지의 지정번호는 해당 국보의 가치나 시대와 상관없이 지정된 순서대로 부여한 행정적 관

리번호이다.

책은 국보의 전체 모습은 물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밀한 부분까지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례로 '반구대 암각화'의 경우 바위 그림(암각화)이 새겨져 있는 현장의 전경 사진을 실었다. 그런데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나 동물, 사람 등의 모습은 사진으로 보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탁본을 수록해 이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문화재의 대표적인 국보를 중심으로 하되, 우리 역사에서 의미를 지니는 유적과 유물 등 문화유산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최근 이슈들 가운데 국보 제1호를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이다. 국보 1호인 승례문에 대한 자격 시비가 일고, 일부 시민단체는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 간송미술관 소장)을 국보 1호로 해야 한다고 국회 청원까지 한 상태다. 국보 지정번호, 특히 제1호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쟁을 정리하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고구려 고분 벽화의 세부 장면들, 신라의 금관의 상상을 초월한 정교한 세공, 고려시대 청자나 조선시대 백자 국보들의 표면에 새겨진 아름다운 무늬들도 눈길을 끈다. 이처럼 국보를 역사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328건 국보가 지니는 가치와 역사뿐 아니라 문화재 전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야기가있는집·2만7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혼란의 시대,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철학카페에서 작가를

만나다 1·2

김용규 지음



"이게 국가냐" "이게 나라냐" 작중에 많은 이들이 자조적으로 내뱉는 말들이다. 사람들은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을 바라보며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라는 의문에 휩싸였다. 아니 의문을 넘어 분노와 자괴감이 빠져들었다.

국가는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측근들은 썩듯돈처럼 국고를 제멋대로 챙겼다. 반칙과 편법이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는 동안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모든 게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불안의 시대다. '헬조선' '흙수저'로 대변되는 오늘의 사회는 희망을 박탈한 지 오래다. '삼포세대'나 '오포세대'니 하는 말들은 진부한 수사가 될 만큼 젊은이들은 무기력과 허탈함에 빠져 있다.

견집을 수 없는 불안이 드러워진 작금의 시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요구받는다. 대중과 소통을 해온 '한국의 움베르토 에코'라 불리는 철학자 김용규 씨가 이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섰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대 시민들이 토론을 하고 다양한 공연을 감상했던 헤로도투스 아티쿠스 음악당. <웅진지식하우스 제공>

그가 최근에 펴낸 '철학카페에서 작가를 만나다 1·2'는 이전의 삶의 지혜를 성찰하게 했던 전작과 달리 지금, 여기, 우리 시대 문제들에 대한 해답에 초점을 맞춘다. 5년 만에 펴낸 책에서 저자는 시인 김선우와 심보선, 소설가 윤성희와 김연수 등 젊은 예술가들과 울림이 있는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한다.

2권으로 이루어진 책은 혁명부터 이데올로기, 시간, 언어를 키워드로 삶의 본질을 관통한다. 1권 1부 '혁명'편에서는 김선우 시인은 물론 바디우, 자젝, 그레이버와 같은 시대의 지성들이 주장하는 '21세기의 혁명'을 살펴본다. 2부 '이데올로기' 편에서는 김연수 소설가와 아서 괴슬러,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읽으며 마사 누스바움의 주장의 핵심을 짚어낸다.

2권 1부 '시간'편에서는 윤성희 소설가와 버지니아 울프 등의 작품과 벤야

민, 바디우 등의 진보학자들이 주장한 카이로스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다. 2부 '언어' 편에서는 심보선 시인과 하이데거 등이 말한 '말의 언어'를 소개하고 인류를 이끄는 '언어의 힘'을 주목한다.

책은 저자의 이전의 저서와는 다른 독특한 구성, 즉 공연·강연·대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는 희곡의 대사를 무심한 듯 펼쳐 보이며 그 속에 숨은 메시지를 강연을 통해 읽어낸다. 이 과정에서 저자가 지식을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생활 속의 지식이 되도록 모색한다. 이 같은 방식은 궁극적으로 파국으로 치닫하는 현재의 시간과 재앙 같은 삶을 정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혁명에 대해, 이데올로기에 대해, 시간에 관해, 언어에 관해 공연하고, 강연하고, 대담"하면서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냉정하게 문제의 본질을 응시하는 건 그 때문이다.

이들의 '인문학 콘서트'는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밥 딜런의 '바람 속'에 있는 대담'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당신은 그를 인간이라 부를까? 얼마나 많은 바다를 건너야 하얀 비둘기는 백사장에 잠들까? 얼마나 많은 포탄이 날아야 그것들은 영원히 금지될까?"

저자가 강조하고 주안점을 두는 핵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하나는 개인이자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시간을 세상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삼키는 크로노스(물리적 시간)로만 파악하지 말고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 존재하는 카이로스(심리적 시간)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웅진지식하우스·각 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든 고통의 경험들은 삶의 과정이자 성숙의 과정



빛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공지영 지음

"아무리 상식적이고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생의 어느 봄날 한 번쯤 오뉴월의 혼풍에 아파서 울 때가 있는 것이니까요. 마치 혼자서만 세상 밖으로 내동댕이쳐진 것 같이 외로울 때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 너만 그러는 것은 아니야, 하고 다가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예술가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이 자본주의와 세계화와의 효율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지, 우리가 여전히 삶을 택하게 하고 인간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공지영 작가의 두 번째 산문집 '빛방울

처럼 나는 혼자였다'가 출간됐다. 2006년 처음 발간된 책은 이후 작가가 보낸 험겨운 시간과 고통의 경험 등이 덧붙여져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을 만난다. 수록된 에세이들은 'J'라는 익명의 존재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글은 기형도의 '빈 집', 자크 프레베르의 '이 사랑', 문태준의 '살구꽃은 어느새 푸른 살구 열매를 맺고' 등 문학 작품들을 매개로 전개된다.

작가는 'J'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상처의 기억이거나 원망의 대상이었던 과거의 사랑과 부조리한 현실 등에 대해 과감하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작가는 고백과 성찰 속에서 결국은 그 모든 고통의 경험들이 삶의 한 과정임을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성숙한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한다.

<해냄·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항·정약용 ... 조선시대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나



조선의 아버지들

백승중 지음

많은 이들은 현대사회를 부권 상실의 시대라고 한다. 그만큼 아버지들의 설 자리가 없다는 의미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나 오늘의 아버지들은 돈을 버는 기계와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자식 교육을 위해 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려, 아빠의 무관심, 이 3가지

가 필요하다는 말을 농담을 넘어 쓸쓸함을 준다. 이 같은 부권 상실은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할 중요한 문화 자산을 배울 기회를 박탈하게 한다. 점에서는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역사학자인 과학기술교육대학교 백승중 대우교수가 펴낸 '조선의 아버지들'은 조선시대 12명의 아버지를 토대로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지 묻는다. 저자는 퇴계 이항, 허서 김인후, 충무공 이순신, 명재상 이항복,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완당 김정희 등을 매개로 오늘의 아버지들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와 가치 등을 이야기한다.

<사우·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삶과 죽음 ... 기다림의 자세에 대한 생각



연옥의 봄

황동규 지음

'상처 많은 삶이라도 애써 벌일 아닌 듯 상처들을 살다 가게 했다. 이젠 내로 일 만한 상처 하나 흠집 하나 남아 있지 않다고? 두 손으로 무릎을 탁 치게.' (무릎' 중에서)

황동규 시인의 열여섯번째 시집 '연옥의 봄'이 출간됐다. 황 시인은 '즐거우면

지', '조그만 사람 노래' 등으로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한국 현대 대표 시인 중 한 명이다. 1958년 등단 후 58년간 존재와 예술, 세계를 향해 질문하는 질실하고 독한 시 창작을 해왔다.

이번 시집에는 '연옥의 봄' 연작 내 편을 포함한 77편의 시가 묶였다. 시편들은 하나하나 시인이 삶과 죽음에 대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부재와 소멸의 사소함을 생의 일부로 수용하고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기다림의 자세에 대한 생각'을 심화해간다.

<문학고지성사·8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 (대신프리모) 남가

대산프리모가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반이식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 잔 멘디나외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경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